

2021년 2차 원전해체 산업 실무협의회 개최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점검



정부, 지자체, 원전해체 산학연 관계자 3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2차 원전해체 산업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2021년 2차 원전해체 산업 실무협의회'가 5월 27일 오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 1차 실무협의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실무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 소재 실무위원은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오프라인으로, 그 외 실무위원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원전해체 산업 실무협의회는 이병식 공동회장(단국대학교 교수)을 비롯하여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 등 정부, 지자체, 원전해체 산학연 관계자 35명이 참석했다.

김규성 과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충실히 점검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환영하였고, 김성수 사무관은 “지난 1차 실무협의회에 이어 원전해체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다시 한 번 마련되어 기쁘고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식 공동회장은 육성 전략 실행계획의 중요성과 민관협의회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날 실무협의회는 이병식 공동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됐으며 40분 간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경남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과 지역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각각 소개하였다.

특히 해체기업 지역간담회와 원전해체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해체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원전해체 산업 실무협의회는 2017년 12월 발족한 「원전해체 산업 민관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정부, 지자체 및 원전해체 산학연 24개 기관이 참여하여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실무협의회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KIIF**

〈5월호〉 바로 잡습니다.

32쪽
70쪽

2단 1번째 줄
제목

opportunitys → opportunities
물(溼水) → 물(輕水)